

KBL 김경이 총재(왼쪽 5번째)를 비롯한 남자프로농구 관계자들이 1일 안양체육관 보조체육관에서 열린 출범 20주년 기념 리셉션 도중 기념 떡을 자르며 한화계 웃고 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농구인들은 과거를 돌이키며 감회에 젖었다. 안양 | 뉴스팀

“스무살 KBL, 스타가 필요해”

KBL 출범 20주년 기념 리셉션

김영기 총재 “팬들에게 최고의 농구 보여야”
KBL원로들 모처럼 한자리 추억 회상 웃음꽃
문경은 감독 “허재형과 올스타전 기억 새록”

남자프로농구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잔치를 열었다.

KBL은 1일 안양체육관 보조체육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남자프로농구는 정확히 20년 전인 1997년 2월 1일 서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대우 제우스(현 전자랜드)-SB S(현 KGC)의 경기를 시작으로 탄생했다. 이를 기념해 KBL은 원년 개막전을 치른 SBS의 후신

KGC의 홈경기에 맞춰 리셉션을 준비했다.

리셉션에는 KBL 초대 총재를 지낸 윤세영 명예회장을 비롯해 한선교 전 총재, 방영 대안농구 협창 등이 참석했다. 또 각 구단 관계자들은 물론 과거 KBL과 각 구단에 몸담았던 이들도 자리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이들은 담소를 나누며 프로농구를 통해 쌓은 추억을 공유했다.

KBL 김영기 총재는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다. 당시에 그냥 선수들이 농구를 하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됐다. 이제는 달라졌다.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생산해야 한다. 스타들을 생산해서 팬들 앞에 선보여야 한다. 우리는 스타가 필요하다”고 출범 20주년 소감을 밝혔다.

안양체육관 복도에선 사진전이 열렸다. 출범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자프로농구를 수놓은 스타들의 모습과 행사 사진이 전시돼 보는 이들의 추억을 되살렸다. 사진전을 둘러싼 스포츠문경의 감동은 “사진을 보니 예전 생각이 많이 난다. 허재(국가대표 감독), 형(강동희 전 동부 감독) 형과 함께 뛰 올스타전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프로 출범 때 나는 상무에 있었다. 프로농구 경기를 보면서 빨리 저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원년 동양 오리온스(현 오리온) 멤버였던 SK 전희철 코치는 “월년부터 외국인선수들이 뛰었다. 그 때 제랄드 무어(전력, 당시 SBS)의 화려한 플레이가 20년 뒤까지 쉽게 벌어지고는 했다. 프로농구가 20년이 됐다고 하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 회상했다.

안양 | 정지숙 기자 stop@donga.com

안양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조성민 품은 LG, 6강 PO 진출 조준
와이즈 영입 모비스, 수비력 키우기

LG·모비스, 막판 트레이드·선수 교체 의미

‘2016~2017 KOC 프로농구’ 4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G와 모비스가 막판 스퍼트를 위한 전력변화를 결정했다. LG는 31일 kt와 트레이드 이득에 합의를 맺어 김형찬(193·196cm)을 내주고 확실한 슈터 조성민(204·189cm)을 데려왔다. 모비스는 같은 날 외국인선수 에릭 와이즈(27·192.8cm)를 찰스 로즈(32·201.1cm)의 시즌교체선수로 선택했다. 전력역 확보에 강화를 꾀한 LG와 높이보다 안정된 수비력에 집중한 모비스는 정규리그 순위를 좁혀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 LG는 올시즌을 치르면서 슈팅가드 포지션에서 적지 않은 아쉬움을 느꼈다. 이 때문에 여러 명의 선수를 번갈아 슈팅가드로 기용했다. 이제 조성민이 그 역할을 잘해준다면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7위지만, 막판 스퍼트로 6강 플레이오프(PO) 진출에 도전한다. LG는 이번 트레이드로 올 시즌뿐 아니라 다음 시즌에도 최상의 베스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래가 지난달 군에서 제대했고, 김종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조성민은 계약기간이 한 시즌 더 남아있다. 이들 삼총사는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시즌에도 함께 뛰는다.

●국가대표급 라인업 구축한 LG

LG는 김시래~조성민~김종규로 국가대표 팀에 버금가는 베스트 멤버를 가동할 수 있게 됐

●높이 포기하고 안정을 택한 모비스

와이즈 영입으로 모비스의 높이는 낮아졌다.



조성민

와이즈

그러나 와이즈는 경기력에 기록이 적다. 기록은 화려하지 않지만, 수비 공헌도가 높다. 특히 스텔 능력과 좋다. 올 시즌 경기당 1.8개의 가로막기 기록을 기록 중이다. 로드의 돌출행동 때문에 고민했던 모비스는 와이즈를 통해 안정된 수비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선수 2명이 모두 단신이지만, 로비에 대한 고민은 203.1cm의 이중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산이다. 또 로드=이종현~함지훈 조합보다 와이즈=이종현~함지훈 조합이 공격적으로도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드, 이종현, 함지훈이 함께 뛰면 동선이 많이 겹치고, 볼이 잘 돌지 않았다. 함지훈의 장점인 패스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와이즈가 이를 신 리를 잡으면 함지훈도 살아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바스켓볼 피플

서른한살에 전성기 맞은 신한은행 슈터 **김연주**

신한은행의 '미녀슈터' 김연주는 조금은 늦게 맞은 전성시대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 아킬레스건 부상 후유증 없이 당당히 코트의 주연으로 활약해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스포츠동아100

지난시즌 수술 후 피눈물 나는 재활
모든 부문 커리어 하이에 3점슛 1위
“나를 믿어준 신기성 감독님 큰 힘”

이어 2위다. 31세의 나이에 당당히 주전 슈터로 전성기를 연 것이다.

김연주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을 받을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주전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다시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 재활과정도 너무 힘들었다. 수술을 해준 의사 선생님과 재활을 도와준 구단 트레이너들이 정말 많이 신경을 써준 덕분에 이렇게 잘 뛸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김연주를 춤추게 하는 신기성 감독의 신로

주전보다는 식스맨으로 각인됐다. 평균 전시간이 20분을 넘긴 시즌도 2차례(2010~2011·2012~2013)뿐이었다. 지난 시즌에는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해 10경기만 뛰었다. 시즌이 끝나기까지 입어 고작 10경기 출전에 그쳤다. 아킬레스건 부상은 순발력과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기량이 하락세를 접어들 것이라 예상이 적지 않았다.

●식스맨? 이제는 당당한 주전!

우려에 불과했다. 올 시즌 김연주는 2경기에서 평균 8.12점·3.32리바운드·1.5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평균 출전시간은 무려 29분35초다. 모든 부문에서 '커리하이'를 찍고 있다. 특유의 3점슛도 여전히 다. 김연주는 올 시즌 14개의 3점슛을 도해 5개를 적중(성공률 36.6%)시켰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3점슛을 쏘았다. 성률에서도 강이슬(KEB하나은행·36.9%)

신 감독은 “(김)연주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착실하게 훈련을 했다. 우리 팀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기 위해선 연주의 3점슛이 필요했기 때문에 준비했고, 기대만큼 잘해주고 있다. 최근 3연승을 올리는 동안에도 연주가 좋은 활약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른한 살에 찾아온 전성기, 김연주의 성공신화는 이제 시작이다.

정지숙 기자 stop@donga.com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DB생명, 삼성생명 꺾고 3연패 탈출

KDB생명이 1일 구리체육관에서 벌어진 '삼
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6라운드 삼
생명과 흥경이에서 75-71로 이겨 3연패에
벗어났다. 5위 KDB생명(10승16패)은 4위 K
B하나은행(10승15패)에 0.5게임차로 다가선
데 반해 2위 삼성생명(13승13패)은 2연패에 빠지

3위 신한은행(11승14패)에 1.5경기차로 쫓기게 됐다. KDB생명 외국인선수 하킨스는 20점·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작성했고, 이경은(16점)과 한 채진(15점)도 31점을 합작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illegible]